
 금융위원회	<div>보도참고</div>		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1.2.19.(금)	

책 임 자	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선 욱(02-2100-2860)	담 당 자	이 영 민 사무관 (02-2100-2865)
	산업은행 기획조정부장 이 봉 희(02-787-6101)		안 성 진 팀장 (02-787-6141)
	기업은행 전략기획부장 김 태 형(02-729-7471)		박 진 현 팀장 (02-729-6321)
	수출입은행 여신총괄부장 강 정 수(02-3779-6261)		김 경 린 팀장 (02-3779-6267)
	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 본부장 이 주 영(053-430-4101)		김 기 완 수석부부장 (053-430-4103)

**제 목 :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은 상호 협력 하에 코로나發
위기 극복과 함께, 미래혁신을 선도해 나가기로 하였
습니다.**

1 간담회 개요

- ☐ '21.2.19.(金),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,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.

< 정책금융기관 간담회 개요 >

- 일시 / 장소 : '21.2.19. (금) 09:00 / 뱅커스클럽
- 참석 : (금융위) 금융위원장, 금융정책국장 / (정책금융기관) 산업은행 회장(이동걸), 기업은행장(윤종원), 수출입은행장(방문규), 신용보증기금 이사장(윤대희)

2 주요 논의사항

가.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 노력 지속

- ☐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 및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확산 차단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 하에서,

- 현재의 코로나19 상황, 실물 여건,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감안할 때, '21년 3월말 시한도래 예정인 소상공인·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·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경우,
 - 정책금융기관도 소금융권과 함께 이자상환 유예를 포함하여 6개월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.
 - 이와 함께, 정책금융기관은 그동안 대출·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.
 - 또한, 정책금융기관장들은 각 기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금 지원이 적극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면서,
 -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유동성 공급, 대출금리 인하, 경영진단 컨설팅 등을 통해 연착륙을 지원*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.
- * (예) 산은의 '재무안정 동행 프로그램'(1조원, 대출·투자), 기은의 '코로나19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'(1조원, 금리인하 등), 신보의 '밸류업 프로그램'(컨설팅 등)
- 이에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·금융충격의 방파제가 되어준 정책금융기관들의 노력에 대한 감사를 표하면서,
 - 향후 방역상황, 경제여건 변화 등을 면밀히 살피가며, 지원방안 추진의 속도 및 방식 등과 관련하여 정부와 긴밀한 소통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.

나. 한국판 뉴딜·혁신금융 등을 통한 미래혁신 대비

- 정책금융기관장들은 코로나19 지원 등 경제회복에 그치지 않고,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한국판 뉴딜, 혁신금융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.
- 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정책형 뉴딜펀드,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정부의 대표과제들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, 벤처·스타트업의 스케일업도 촉진하는 등 미래혁신을 전인하겠다고 하였습니다.

②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산업분류에 얽매이지 않고 업종과 분야를 불문하여 혁신을 선도하는 잠재력 있는 기업을 선별·육성함으로써 우리나라의 '뉴딜과 혁신'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③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2차전지, 수소에너지 등 자체적으로 선정한 7대 중점분야*를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하며 한국판 뉴딜의 글로벌화를 촉진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.

* 2차전지ESS, 태양광·풍력, 수소에너지, 미래모빌리티, 5G차세대반도체, 제약헬스케어, 디지털콘텐츠

④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녹색·디지털분야 등 미래성장성을 갖춘 기업에 대해 단계별(R&D→사업화→성장)로 특화된 보증을 제공하는 등 미래혁신에 기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□ 이에 금융위원장도 전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및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,

①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 일선 창구에서도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장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,

- 금융위는 기업이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추면 원활히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'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'을 마련할 계획으로,
- 어떤 기업이 확대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②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하여서는, 동 펀드는 기존의 정책펀드와 달리 PF 투자 등도 적극 수행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으로서,

-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 만큼, 정책금융기관들도 뉴딜펀드가 성공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고,

③ 올해 17.5조원 규모의 뉴딜금융은 향후 5년간 100조원 규모의 자금공급을 위한 첫 출발이며, '무늬만 뉴딜금융'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마중물 공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.

다. 녹색금융 활성화 중점 추진

- 정책금융기관장들은 녹색금융을 새로운 시대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,
 - 이러한 관점에서 각 기관은 녹색분야 지원비중을 확대('19년 6.5% → '30년 13%)하기 위해 기관별 투자전략을 마련 중이며,
 - 녹색금융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*하여 업무일관성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시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.
- * (산은) 정책기획부문을 "정책·녹색기획부문"으로 확대 개편('21.1월)
(수은) 신재생에너지산업팀, 전기전자산업팀, 미래모빌리티산업팀 등 신설('21.1월)
(기은) 경영전략그룹 전략기획부 내 "ESG 경영팀" 신설('21.1월)
(신보) 신용사업부문 신용보증부 내 "ESG 금융팀" 신설('21.2월)
- 금융위원장은 과감한 금융지원뿐만 아니라, 적극적인 정보공유 등을 통한 기관간 역할분담과 중복지원 최소화도 중요하며,
 - 금융위는 녹색금융 업무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올해 정책 금융기관간 "그린금융협의회*"를 신설할 계획으로,
- * 협의회 구성(안) : 금융위(주관), 산은, 수은, 기은, 무보, 신보, 기보 등 협약기관
- 각 기관에서는 해당 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이끌어 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

라. 코로나19 지원노력을 감안한 정책금융기관 경영평가 등 조정

- 한편,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정책금융기관의 업무량 급증에 따른 고충에 공감하면서,
 - 작년에 이미 밝혔듯이, 올해 7월 예정된 '20년도 정책금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수익성, 건전성 지표를 제외하고 정책금융 공급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고,
 - 내년 시행 예정인 '21년도 경영평가에 대한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역할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면서,
 - 올해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각 기관이 총력을 다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
할 경우 출처를 표기
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